

문화

'펜의 미학' 드로잉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내달 19일까지 다이어리전

드로잉 작품에는 짧은 시간에 토해 낸 작가의 호흡과 현장의 감동이 담겨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8일~3월 19일 일상의 모습을 담은 회화, 오브제, 드로잉을 선보이는 '드로잉 다이어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두·노석미·류장복·유근택·이영빈·이진경·이해민·선·박문중·박수만·윤남웅·김은주·이선경·박인우씨가 참여한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을 시간대별로 담담하게 먹으로 담아낸 유근택의 수록 드로잉, 자연에서 느끼는 경이

로움을 담백한 글귀와 함께 자유로운 선으로 담아낸 김선두의 드로잉 등 눈여겨 볼 작품이 많다.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인 '상상을 담은 그림일기-아트클래스'로 결속된다. 5세 이상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11일에는 전시 참여작가 윤남웅씨가 현장에서 드로잉을 그려 나눠주는 행사인 '즉흥, 드로잉을 만나다'도 열린다. 재료비 1000원. 문의 062-360-127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수만 작 '장날'

시문학과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강진 영랑 김윤식 생가 옆 기념관 개관... 내달 5일 기념식·학술대회

시를 목적이 아닌 시 자체로 바라보고, 이념이 아닌 우리의 언어를 언어 자체로 어루만지고 다듬었던 '시문학과'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문을 연다.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터를 잡은 '시문학과기념관'이 '시문학과'와 생명을 함께한 잡지 '시문학'의 창간일에 맞춰 오는 3월 5일 문을 연다.

'시문학과기념관'은 영랑 김윤식(1903~1950) 생가 옆에 들어섰고, 총 29억원을 들여 연면적 600㎡ 복층 건물로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이 전시된다. 전시공간과 자료실, 세미나실, 소공원 등의 시설을 갖췄다.

시문학과 시인들의 시적 이미지를 담은 영상과 시문학과와 탄생 배경과 시 세계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시문학'이 창간된 1930년대 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 1910년~



1960년대 한국 문단의 큰 줄기를 살필 수 있는 '한눈에 보는 한국 시사' 등도 곁들여졌다.

'시인의 전당'에는 영랑과 김현구·정지용·변영로·정인보·박용철·이하운·신석정·허보 등 시문학과 동인 9명의 유품과 친필, 저서, 사진물 등을 전시한다. 또 국내 유일본 '신문계'

(1916년)를 비롯해 학술문예지 '여명'(1925년) 등 5000여권의 도서가 소장돼있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왜 시문학과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실에서 개관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문의 010-3636-0704.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감독·아트광주 이지윤 디렉터

'월간미술' 2012년 빛날 미술인 20인에 뽑혀

제9회광주비엔날레 김선정 공동감독과 아트광주 이지윤 디렉터가 미술전문지 '월간미술'이 선정한 '2012년 빛날 미술인 20인'에 뽑혔다.

김선정 감독은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미국 크랜브룩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

시 커미셔너를 지냈다. 또 '플랫폼 인기무사' 등의 전시를 기획했고, 아트선재센터 수석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고, 구겐하임의 아시아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 함께 뽑힌 이지윤 디렉터는 공동체 '숨 아카데미&프로젝트(SUUM



김선정



이지윤

Academy&Project)와 서울 서초동에 비영리 전시공간 '아트클럽1563'을 운영해오는 등 미술전시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Notre Dame de Paris
과지모도, 그의 깊고 애절한 사랑 노래



'노르드담 드 파리' 오리지널팀 공연이 광주에서 열린다. 3월 8일~11일(총 6회)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1998년 파리에서 초연된 프랑스 버전의 오리지널 스텝인 연출가 질마오와 예술감독 웨인 폭스가 참여한 이번 오리지널 팀 공연은 아시아 순회공연 일환으로 마련된 영어 버전이다.

'노르드담 드 파리'는 집시어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성당 종지기 과지모도, 프롤로 신부, 근위대장 페뷔스가 서로 얽히고 설켜 사랑, 배신, 증오, 질투 등 다양한 인간사를 노래한다.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라 즐거움을 알고 가면 훨씬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커튼콜은 놓치면 후회한다.

▲최고의 과지모도를 만나다. 지난 2005년 당시 처음 내한했던 프랑스 오리지널팀 공연에서 과지모도역을 맡았던 뱃 로랑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그의 애절한 사랑이 감정이 온전히 담긴 목소리에 실려 깊은 울림을 줬다.

이번 광주 무대에도 서는 뱃 로랑은 지난 1998년 파리 팔레 데 콩그레 극장에서 처음 과지모도를 데뷔한 이후 과지모도 역으로만 13년째 무대에 오르며 500번 넘게 출연했다. 특히 서울 공연중이었던 지난 1월31일은 그가 과지모도를 맡은 지 꼭 13년이 되는 날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공연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짙은 과지모도역은 공연 내내 10kg에 달하는 무대 의상을 입고 한쪽 어깨를 계속 기울인채 연기를 해야한다. 또 성당 벽을 타기도 하고, 바위에 묶여 굴러다니는 등 힘든 연기의 연속이다. 이때문에 한 국판 '노르드담 드 파리'에서 과지모도역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윤형렬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뱃 로랑은 철저한 성대관리로 과지모도만의 거칠고 굵은 창법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 특히 그가 마지막에 에스메랄다의 주검을 앞에 놓고 부르는 '춤추어라 에스메랄다'가 흐를 때면 객석에서는 한숨, 탄식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많다.

▲매력적인 캐릭터 관객 홀리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바

탕으로 한 작품인 터라,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무엇보다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등장인 인상적이다.

집시 여자 에스메랄다가 사랑하는 세명의 남자의 세가지 사랑은 작품을 관통하는 큰 줄기다.

뮤지컬을 본 관객들 사이에서 과지모도와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은 프롤로 신부다. 그는 성직자지만 신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집시 여자 에스메랄드를 사랑하는 고뇌를 절절히 표현한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노르드담 드 파리'를 비롯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레 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나이젤 리처드가 출연한다.

여기에 약혼자를 배신하고 에스메랄다의 구애를 거부하지 못하는 근위대장 페뷔스역시 인간의 고뇌를 잘 드러내 준다.

그밖에 공연의 막을 여는 그랭그와르도 눈여겨 볼 캐릭터다. 거리의 음유시인으로 해설자의 입장에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극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주요감독 음악·가수 뛰는 춤 대사 없이 노래로만 구성된 '노르드담 드 파리'에는 50여곡의 노래가 등장한다. OST는 전세계적

으로 1200만장이 팔렸다.

과지모도, 페뷔스, 프롤로 세명의 남자가 부르는 '아름답다'와 작품을 여는 첫곡인 '대성당의 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다. 프롤로 신부가 에스메랄다를 향한 욕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부르는 '내가 나를 파멸시키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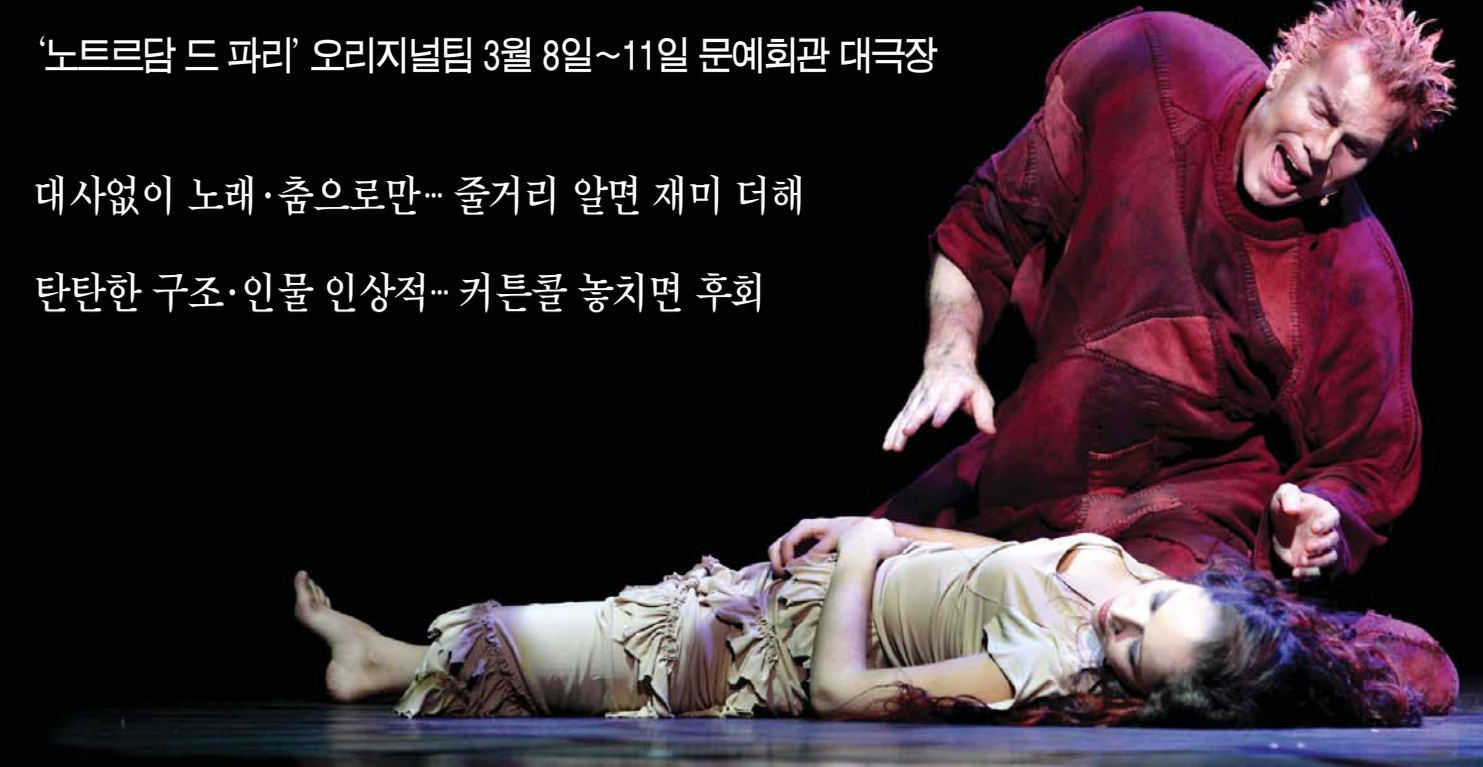
에스메랄다의 애절한 음식으로 듣는 '새장 속에 갇힌 새'와 '살리라' 역시 귀에 감기는 뮤지컬 넘버다.

'노르드담 드 파리'는 일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달리 노래하는 배우와 춤을 추는 무용수가 분리돼 있는 작품이다. 무용수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춤으로 단련돼 있고, 사람의 몸이 얼마나 훌륭한 악기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서양인 특유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20여명의 무용수는 무대 위를 뛰고 구르고 공중에 매달리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페뷔스가 '사랑의 방향'을 부를 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받아가며 절규하듯 춤을 추는 남자 무용수들의 모습을 보면 몸이 정말 부서져 버릴 것 같다.

티켓 가격 16만5000원~6만6000원. 문의 062-220-0541, 1588-0766.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노르드담 드 파리' 오리지널팀 3월 8일~11일 문화회관 대극장

대사없이 노래·춤으로만... 즐거워 알면 재미 더해

탄탄한 구조·인물 인상적... 커튼콜 놓치면 후회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